

아동의 놀이성이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최 태 산¹⁾

조 미 정²⁾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는 남녀 아동의 자기조절력과 놀이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들 변인간의 관계에 대해 성별에 따른 다른 양상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광주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5,6 학년 5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측정도구는 최태산, 최명선, 조미정(2008)의 놀이성 측정도구와 허정경(2003)의 자기조절력 측정도구를 사용했으며 상관계수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상관계수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아동의 놀이성 하위변인 중 재미탐닉을 제외한 모든 하위변인은 인지적 자기조절과 동기적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놀이성에 차이를 살펴보면 남아가 여아에 비해 유머감각이 높고 독자적 놀이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력의 성별차이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인지적 자기조절력과 행동적 자기조절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아동 모두 정서적 놀이성과 사회적 놀이성이 자기조절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남녀 간의 관계 양상 차이는 남아의 정서적 놀이성이 인지적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여아는 중요한 설명변인으로 밝혀졌고 기발성은 이와는 반대였다.

주요어 : 초등학생, 놀이성, 자기조절력, 성별차이, 관계분석

1)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2) 교신저자 :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강사, 참성장심리상담센터 소장 (E-mail : 2875jody@hanmail.net)

I. 서론

최근 급변하는 사회 환경은 아동들에게 많은 학교 부적응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자기조절력의 문제는 게임중독, 인터넷 중독, 주의 집중력 문제, 과잉행동, 적대적 반항 행동, 대인관계 갈등, 과도한 분노 표출 등의 행동으로 나타나 아동들의 적응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발달단계상의 특성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Erikson (1972)은 아동과 청소년들은 신체적 성숙과 더불어 정신적으로도 급격하게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시기의 초기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접어드는 시기로 자아개념이 확고하게 발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자아개념을 현상학적 관점에서 보면 학습과 학업성취는 물론 인간의 모든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고유한 정체감 또는 자아감으로서(정정옥, 강문희, 1996)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아동들은 자기조절을 하고자 한다. 즉, 아동들의 자기조절은 건강한 자아개념을 위한 중요한 동기이고 자아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달한다(Mcombs & Marzano, R 1990).

이러한 자기조절력은 환경의 요구에 따라 행동을 시작하고 멈출 수 있고 사회적 교육적 장면에서 언어적, 신체적 활동의 강도, 빈도와 지속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고자 하는 목표나 목적을 위해 행동을 지연시킬 수 있고 다른 외부적 제한 없이도 사회적으로 안정된 행동을 생성하는 능력(Kopp, 1982)을 말한다. 자아조절의 개념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적응적이고 융통성 있는 방법으로 외부 자극에 대해 자신의 행동,

사고, 감정을 다루는 기질적 능력이라고도 정의하기도 한다(Derry & Rothbart, 1988; Eisenberg, 1996). 자기조절능력은 아동의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아동의 건강한 삶에도 관련이 있다. 자기조절력이 높은 아동은 또래 유능성이 높고 신뢰적이며 스트레스에 잘 견디며 건강한 삶을 경험한다(Mischel, 1983). 반면에 자기조절력이 낮은 경우에는 대인관계의 갈등에 있어서 문제해결 능력이 미숙하고 행동문제나 스트레스에 취약하다(윤영신, 2007). 각 발달단계마다 다른 과업이 있겠지만 특히 아동기의 자기조절능력은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바람직한 행동은 하고 그렇지 않은 능력을 억제하는 힘과 동시에 충동적이거나 즉흥적이지 않도록 문제를 스스로 신중하게 계획, 해결,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허정경, 2003).

이러한 자기조절력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측정도구가 소개되거나 연구(양명희, 2000; 정미경, 2000; 허정경, 2003; Kendall, 1979)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척도는 인지적 자기조절력과 동기적 조절, 행동적 조절의 세 요인으로 나누어진 것이다. 그밖에도 개인적 요소, 행동적 요소, 환경적 요소(Zimmerman, 1990)로 나누거나, 인지전략, 자아 효능감, 숙달 목적 지향성, 성취가치(Garcia & Pintich, 1994)로 나눈 경우, 사회적, 정서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 인지적 자기조절, 자기조절의 동기(Bronson, 2000)등으로 구성한 경우, 인내심, 집중력, 주의, 사회성(이정훈, 2002)으로 소개된 경우 등이 있다.

현재까지 연구된 자기조절력 연구들은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른 자기조절력에 대한 차이 연구(Kendall & Wilcox, 1979; Kopp, 1982; Mischel & Misc, 1983; Marsh, 1989; Zimmerman & Martinez Pons, 1990; 김현주, 2009; 김은숙, 2008; 정영숙, 1996; 송명자, 1995), 자기조절력과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연구(Eisenberg, Fabes, 1992; 이경임, 1996; 최정원, 1999), 자기조절력과 정서적 능력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Mayer, Salovey, 1990; Goleman, 1995; Cumming, Davics 1996; Greenberg, 1999; Zenman & Ship, 1996; 김정희, 1997; 김광웅, 방은령, 1996; 황의명, 1997; 김문신, 2003), 자기조절력과 아동의 기질과의 관련성을 다루었거나(최영희, 1990; 황윤세, 2007),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박호선, 2002; 손경화, 2001; 안미경, 1997), 그리고 자기조절력이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힌 연구(문병상, 2000; Zimmerman & Martinez Pons, 1990; 김양현, 1987; 정정옥, 1996; 홍기철, 1994)등이 있다. 이밖에도 자기조절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한 연구(김은숙, 2008; 김미영, 2009; 박지연, 2009; 김명숙, 2008; 김지아, 2002; 김화자, 2008; 김유경, 2005; 이은숙, 2007; 이미화, 2009; 박미경, 2009; 최정원, 1999; 양유진, 2010; 손은혜, 2009)들도 주를 이룬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선행 연구들은 자기조절에 대한 연구를 아동의 개인변인으로 성과 연령, 사회적 능력, 정서적 능력, 기질, 학업 성취도 등을 다루거나 양육태도와 같은 부모변인을 주로 다루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선행연구들을 보면 아동의 성과 연령

과 기질과 같이 자기조절력을 설명하는 변인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능력이나 정서적 능력, 학업성취와 같이 자기조절력에 의해 설명 받는 변인들을 다루는 연구들로 나누어지고, 후자에 비해 전자의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즉, 현재까지 이루어진 자기조절력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아동의 발달에 대한 자기조절력에 설명변인으로서의 기능을 밝히는데 주력하여 왔다. 이러한 작업은 아동의 다양한 변인을 탐색하여 자기조절을 발달시키는데 필요한 설명변인을 찾는 것으로 많은 아동들의 자기조절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의미 있는 주제라 사료된다.

그 중 특히, 아동의 성장을 돕는 자기조절력을 향상시키는 기초적 작업으로 아동의 내적 심리잠재 변인을 밝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아동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놀이는 자기를 조절하고 동기화하는 자기조절능력향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변인이다. 아동은 또래나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조절능력을 발달시킨다고 한 정정옥(1996)의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놀이성이 풍부한 아동들은 많은 놀이경험을 통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풀어내고 경험을 재현하여 조절력을 떨어뜨리는 역기능적 특성들을 완화하여 갈 것이다. S. Freud(1925)는 아동은 놀이경험을 통해 불안을 해소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며, 자신의 힘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놀이성이 높은 아이들은 조절력을 떨어뜨리는 불안, 공격성, 분노, 스트레스 등에 억압된 감정들을

놀이를 통해 이를 해소하거나 감소시켜 자기조절력을 높일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도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의 놀이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놀이성은 자기조절력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문인정, 2008; 박윤자, 2005; 최경아, 2006; 황윤세, 200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인정(2008)은 유아의 놀이성이 행동적 자기조절력과 정적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놀이에서 사회적 자발성이 높고 즐거움의 표현이 많을수록 행동적 자기조절력의 하위변인인 자기통제를 잘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인지적으로 자발성이 높고 유머감각이 높을수록 자기주장이 높고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잘 억제하고 자기를 잘 평가하여 행동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박윤자, 2005; 이경실, 1997; 이혜원, 황윤세, 2006; Caplan, 2000; Udwin, 1983)이 대표적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놀이성과 자기조절력에 대한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두 변인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주력하여 왔다. 그러나 자기조절력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야기되는 아동기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고 이를 놀이성과 연관 지은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는 아동의 놀이성을 연구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부재하였고, 학령기 아동의 발달 과정에서 놀이성 연구주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분야에 속하였다. 또한 놀이성이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에 있어 남녀 차이를 주요 변인으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놀이성과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있어 특히 이러한 관계가 남녀 아동의 성에

따라 어떠한 양상의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자기조절력에 대해 성별차이를 다룬 연구(김은숙, 2008; 김현주, 2009; 송명자, 1995; 이경림, 1996; 정영숙, 1994; Kendall & Wilcox, 1979; Kopp, 1982; Marsh, 1989; Zimmerman & Martinez Pons, 1990)들은 주로 성별과 연령을 함께 다루었다. 대표적인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현주(2009)는 인지적 자기조절력과 정서적 자기조절력이 여아가 남아에 비해 높다고 보고하였고, 강기숙(2001)은 유아의 과제 인내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이경림(2001)과 Kendall과 Wilcox(1979)도 여아가 남아보다 지루하거나 해야 할 과제에 참을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수행을 하는 인지적, 행동적 자기조절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놀이성에 대한 성별 차이 연구는(김경란, 1990; 김영희, 1996; 김준희, 2000; 유애열, 1994; 박화윤, 마지순, 천은영, 2004; 백수정, 2002; 송민영, 1988; 최태산, 조미정, 2008; Pulaski, 1973; Singer & Rummo, 1973; Smith & Daglish, 1977; Tauber, 1979; Dipietro, 1981; Barnett & Klieber, 1982.) 등이 있다. 최태산, 조미정(2008)은 독자적 놀이성이 여아가 남아에 비해 높다고 보고하였고, 사회적 놀이성, 정서적 놀이성, 재미탐닉은 여아가 남아에 비해 높다고 보고하였다. Barnett과 Klieber(1982)의 연구에서는 남아가 모든 놀이성 차원에서 높게 평가된 반면 여아는 놀이성 전반에서 낮게 평가됨으로써 여아와 남아는 놀이성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Singer와 Rummo(1973)의 연구에서는 지능과 창의성에 상관없이 여아들이 남아에 비해 놀이성이 낮으며 또래관

계에서 덜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박정옥(2000), 김준희(2000), 송민영(1988)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 감각 등에서는 남아가 여아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놀이성과 자기조절변인은 남아와 여아간의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을 놀이성과 자기조절변인간의 관계를 밝히는데 주요한 연구변인으로 상정하여 결과를 밝힐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놀이성 변인이 아동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순기능적 역할을 밝혀내어 아동교육 현장이나 상담, 부모와 교사를 위한 교육 내용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의 놀이성과 자기조절간의 관계가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서 현장인 들에게 아동의 자기조절력과 놀이성과의 관련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차별적인 접근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아동의 자기조절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부모 및 교사교육을 위한 이론적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연구문제

- 1) 아동의 놀이성과 자기조절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 아동의 놀이성은 자기조절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3) 남아의 놀이성은 자기조절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 여아의 놀이성은 자기조절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학생 5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광주광역시 소재 B, J 초등학교와 전라남도 소재 H, Y 초등학교에 질문지 총 600부를 배포하여 562(93.6%)명이 질문에 응답하였다. 성별분포는 남아 283명(50.4%) 여아 279명(49.6%), 연령은 9세 아동 4명(0.7%), 10세 아동 238명(42.3%), 11세 아동 287명(51.1%), 12세 아동 32명(5.7%)이었다.

2. 측정도구와 신뢰도

1) 아동의 놀이성을 측정하기위한 측정도구는 최태산, 최명선, 조미정(2008)이 제작한 초등학교생의 놀이성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63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의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반반이다(3점), 대체로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놀이성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97이고 하위변인은 총 6개로 구성되어있다. 첫째, 유머감각의 신뢰도는 .93이며 다른 사람의 말을 흉내 내거나 재미있는 유행어를 만들어 쓰고 다른 사람을 재밌게 만드는 다양한 언어적 기술을 가졌으며, 원래 가지고 있는 신체적 특징과 더불어

어 친구들에게 재미를 주는 신체적 움직임을 즐겨하고 쇼맨십이나 기분을 좋게 하는 기술을 통해 분위기를 바꾸는 등의 언어적·신체적 감각과 기술을 의미한다. 둘째 정서적 놀이성의 신뢰도는 .88이며 아동이 놀이할 때 정서적으로 명랑하고 즐거우며,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의 정서와 동기를 조절하면서 놀이에 몰입할 수 있는 놀이에서의 정서적 힘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적 놀이성은 신뢰도가 .87이고 아동이 놀이 시 좋은 관계적 성향을 지니고 이를 통해 관계에서의 재미를 추구하며, 공동의 규칙과 흥미를 기꺼이 공유하면서, 또래에서 놀이상황에서 이타성을 발휘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넷째, 독자적 놀이성은 .72이고 아동이 혼자서 노래 부르거나 낙서하기, 또는 목욕하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등의 행동과 같이 혼자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얻는 놀이행동특성을 의미한다. 다섯째, 재미탐닉의 신뢰도는 .59이며 아동이 놀이 시 재미를 느끼는 것에 대한 욕구와 동기가 높고, 재미위주의 놀이거리를 즐기며, 그런 놀이에 몰입하는 행동 특성을 지닌다. 여섯째, 기발성은 .90이며 아동이 놀이할 때 독특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표현하고 놀이방식에 있어 유연한 사고와 대처를 하면서 다른 아이들과의 놀이를 활성화시키는 특성을 의미한다.

2) 학령기 아동의 자기조절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허정경(2003)이 제작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7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의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반반이다(3점), 대체로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하위변인은 총 3가지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첫째, 인지적 자기조절의 신뢰도는 .69이며 기억, 지식, 정보의 부호화와 해석을 의미하고 있으며 둘째, 동기적 자기조절의 신뢰도는 .68로 능력에 대한 신뢰, 과거 경험과의 연계 목표조정을 의미하며 셋째, 행동적 자기조절은 충동성, 스트레스, 또래압력, 감정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신뢰도는 .61이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81로 신뢰로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통계프로그램 SPSS 17 Version을 사용하여 인구학적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Cronbach α 를 구하였다. 두 변인간의 검증을 위하여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초등학생 남아와 여아를 분류하여 각 집단 내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놀이성 하위변인 간에 다중공선성을 진단하였고, 그 결과 VIF계수가 1.00-2.00의 값을 배회하고 있어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성(性)별에 따른 놀이성과 자기조절력의 차이, 아동의 성에 따른 놀이성과 자기조절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그 결과에 의하면 놀이성은 유

표 1. 아동의 성(性)별에 따른 놀이성과 자기조절력의 차이

양육행동 · 리더십	성별	남아(N=283)	여아(N=279)	t
		M(SD)	M(SD)	
놀이성	유머감각	43.76(13.36)	41.53(12.18)	1.96*
	정서적 놀이성	41.64(8.62)	42.12(6.94)	.07
	기발성	32.17(8.83)	30.99(7.94)	1.63
	사회적 놀이성	44.94(10.39)	45.88(10.96)	1.05
	독자적 놀이성	15.60(5.84)	18.87(5.62)	-6.71***
	재미탐닉	19.58(3.85)	19.13(3.79)	1.38
자기 조절력	인지적 자기조절	36.00(7.51)	37.34(7.24)	-2.13*
	동기적 자기조절	27.12(6.01)	27.49(5.42)	.75
	행동적 자기조절	26.23(4.61)	27.16(4.70)	-2.32*

* $p < .05$, *** $p < .001$.

머감각($t=1.96$, $p<.05$)과 독자적 놀이성($t=-6.71$, $p<.001$)에서 남아와 여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머감각은 남아가, 독자적 놀이성은 여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자기조절력의 남녀차이는 인지적 자기조절($t=-2.13$, $p<.05$)과 행동적 자기조절($t=-2.32$, $p<.05$)에서 남아와 여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지적 자기조절력과 행동적 자기조절력은 남아에 비해 여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전체 아동의 놀이성과 자기조절 능력간의 관계

전체 아동의 놀이성과 자기조절 능력간의 상관관계

아동의 놀이성과 자기조절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자기조절력의 하위변인 중 인지적 자기조절은 놀이성 하위변인 전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상관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놀이성($r=.640$, $p<.001$)이 높을수록, 기발성($r=.566$, $p<.001$)이 높을수록, 정서적 놀이

표 2 전체 아동의 놀이성과 자기조절능력간의 상관관계

변인	인지적 자기조절	동기적 자기조절	행동적 자기조절
유머감각	.303***	.258***	-.005
정서적 놀이성	.557***	.586***	.317***
기발성	.566***	.494***	.219***
사회적 놀이성	.640***	.597***	.316***
독자적 놀이성	.368***	.305***	-.037
재미탐닉	.246***	.220***	.005

*** $p < .001$.

성($r=.557, p<.001$)이 높을수록, 독자적 놀이성($r=.368, p<.001$)이 높을수록, 유머감각($r=.303, p<.001$)이 높을수록, 재미탐닉($r=.246, p<.001$)이 높을수록 인지적 자기조절력은 높아졌다.

또한 동기적 자기조절력도 놀이성의 모든 하위변인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사회적 놀이성($r=.597, p<.001$)이 높을수록, 정서적 놀이성($r=.586, p<.001$), 기발성($r=.494, p<.001$)이 높을수록, 독자적 놀이성($r=.305, p<.001$)이 높을수록, 유머감각($r=.258, p<.001$)과 재미탐닉($r=.220, p<.001$)이 높을수록, 동기적 자기조절력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자기조절력은 놀이성의 모든 하위변인 중 정서적 놀이성($r=.317, p<.001$), 사회적 놀이성($r=.316, p<.001$), 기발성($r=.219,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정서적 놀이성과 사회적 놀이성, 그리고 기발성이 높을수록 행동적 자기조절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 아동의 놀이성이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전체 아동의 놀이성이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위의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자기조절능력의 모든 하위변인에 대한 놀이성의 하위변인들($F=64.43, p<.001, F=54.02, p<.001, F=21.76, p<.001$)의 회귀방정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자기조절력의 하위변인에 대한 놀이성 각 하위변인들의 구체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먼저 인지적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미치는 놀이성 하위변인은 사회적 놀이성($\beta=.423, p<.001$)

이 가장 높았고, 기발성($\beta=.317, p<.001$), 유머감각($\beta=-.294, p<.001$), 독자적 놀이성($\beta=.140, p<.01$), 그리고 정서적 놀이성($\beta=.125, p<.01$) 순으로 나타났다. 동기적 자기조절력에 대한 놀이성 각 하위변인들의 영향력은 정서적 놀이성($\beta=.358, p<.001$)이 가장 높았고, 사회적 놀이성($\beta=.332, p<.001$), 유머감각($\beta=-.305, p<.001$), 기발성($\beta=.166, p<.01$), 그리고 독자적 놀이성($\beta=.102, p<.05$)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미치는 놀이성 하위변인을 살펴보면 유머감각($\beta=-.337, p<.001$)이 가장 높았고, 정서적 놀이성($\beta=.318, p<.001$), 사회적 놀이성($\beta=.313, p<.001$), 그리고 독자적 놀이성($\beta=-.143, p<.01$)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아동의 놀이성 하위변인 중 재미탐닉을 제외한 모든 하위변인은 인지적 자기조절력과 동기적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유머감각은 부적인 영향을 그 외의 변인

표 3. 전체 아동의 놀이성이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변인	인지적 자기조절	동기적 자기조절	행동적 자기조절
유머감각	-.294***	-.305***	-.337***
정서적 놀이성	.125**	.358***	.318***
기발성	.317***	.166**	.097
사회적 놀이성	.423***	.332***	.313***
독자적 놀이성	.140**	.102*	-.143**
재미탐닉	.008	-.002	-.053
R^2	.474	.432	.230
F	64.428***	54.020***	21.764***

* $p<.05$, ** $p<.01$, *** $p<.001$.

들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행동적 자기조절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놀이성 하위변인은 정서적 놀이성과 사회적 놀이성이며 유머감과 독자적 놀이성은 부적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3. 남아의 놀이성과 자기조절 능력간의 관계

남아의 놀이성과 자기조절력간의 상관관계

남아의 놀이성과 자기조절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조절력의 하위변인 중 인지적 자기조절은 놀이성 하위변인 전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상관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놀이성($r=.661$, $p<.001$)이 높을수록, 기발성($r=.583$, $p<.001$)이 높고, 정서적 놀이성($r=.565$, $p<.001$)이 높을수록, 독자적 놀이성($r=.322$, $p<.001$)과 유머감각($r=.276$, $p<.001$)이 높을수록, 재미탐닉($r=.194$, $p<.001$)을 많이 할수록 인지적 자기조절력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동기적 자기조절력도 놀이성의 모든 하위변인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사회적 놀이성($r=.623$, $p<.001$)이 높을수록, 정서적 놀이성($r=.604$, $p<.001$), 기발성($r=.502$, $p<.001$)이 높을수록, 독자적 놀이성($r=.302$, $p<.001$)이 높을수록, 유머감각($r=.257$, $p<.001$)과 재미탐닉($r=.236$, $p<.001$)이 높을수록, 동기적 자기조절력은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자기조절력은 놀이성의 모든 하위변인 중 사회적 놀이성($r=.350$, $p<.001$), 정서적 놀이성($r=.344$, $p<.001$), 기발성($r=.283$,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표 4. 남아의 놀이성과 자기조절력 간의 상관관계

변인	남		
	인지적 자기조절	동기적 자기조절	행동적 자기조절
유머감각	.276***	.257***	.033
정서적 놀이성	.565***	.604***	.344***
기발성	.583***	.502***	.283***
사회적 놀이성	.661***	.623***	.350***
독자적 놀이성	.322***	.302***	-.047
재미탐닉	.194***	.236***	.044

*** $p<.001$.

보였다.

남아의 놀이성이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남아의 놀이성이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은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자기조절력의 모든 하위변인에 대한 놀이성의 하위변인들

표 5. 남아의 놀이성이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변인	남		
	인지적 자기조절	동기적 자기조절	행동적 자기조절
유머감각	-.332***	-.366***	-.377***
정서적 놀이성	.051	.379***	.216*
기발성	.361***	.167*	.200*
사회적 놀이성	.525***	.393***	.381***
독자적 놀이성	.060	.088	-.179*
재미탐닉	-.035	-.034	.000
R^2	.486	.485	.250
F	34.136***	33.469***	12.306***

* $p<.05$, *** $p<.001$.

($F=34.14$, $p<.001$, $F=33.47$, $p<.001$, $F=12.31$, $p<.001$)의 회귀방정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자기조절력의 하위변인에 대한 구체적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인지적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미치는 놀이성 하위변인은 사회적 놀이성($\beta=.525$, $p<.001$)이 가장 높았고, 기발성($\beta=.361$, $p<.001$), 유머감각($\beta=-.332$, $p<.001$) 순으로 나타났다. 동기적 자기조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적 놀이성($\beta=.393$, $p<.001$)이 가장 높았고, 정서적 놀이성($\beta=.379$, $p<.001$), 유머감각($\beta=-.366$, $p<.001$), 기발성($\beta=.167$, $p<.05$)순이었다. 마지막으로 남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미치는 놀이성 하위변인은 사회적 놀이성($\beta=.381$, $p<.001$)이 가장 높았고, 유머감각($\beta=-.377$, $p<.001$), 정서적 놀이성($\beta=.216$, $p<.05$), 그리고 기발성($\beta=.200$, $p<.05$), 독자적 놀이성($\beta=-.179$, $p<.01$)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남아는 사회적 놀이성이 높고 기발성이 높을수록 인지적 자기조절력이 높은 반면 유머감각이 높을수록 인지적 자기조절력은 낮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그리고 사회적 놀이성과 정서적 놀이성, 기발성이 높을수록 동기적 자기조절력이 높은 반면, 유머감각이 높을수록 동기적 자기조절력은 오히려 낮아졌다. 이와는 다른 양상으로 사회적 놀이성과 정서적 놀이성, 기발성이 높을수록 행동적 자기조절력은 높아지는 반면 유머감각과 독자적 놀이성이 높을수록 행동적 자기조절력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여아의 놀이성과 자기조절력 간의 상관관계

여아의 놀이성과 자기조절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자기조절력의 하위변인 중 인지적 자기조절력은 사회적 놀이성($r=.615$, $p<.001$)이 높을수록, 기발성($r=.568$, $p<.001$)이 높을수록, 정서적 놀이성($r=.551$, $p<.001$)이 높을수록, 독자적 놀이성($r=.401$, $p<.001$)이 높을수록, 유머감각($r=.357$, $p<.001$)이 높을수록, 재미탐닉($r=.315$, $p<.001$)이 높을수록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동기적 자기조절력도 놀이성의 모든 하위변인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사회적 놀이성($r=.567$, $p<.001$)이 높을수록, 정서적 놀이성($r=.561$, $p<.001$), 기발성($r=.489$, $p<.001$)이 높을수록, 독자적 놀이성($r=.314$, $p<.001$)이 높을수록, 유머감각($r=.271$, $p<.001$)과 재미탐닉($r=.207$, $p<.001$)이 높을수록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행동적 자기조절력은 놀이성의 모든 하위변인 중 정서적 놀이성($r=.285$, $p<.001$),

표 6. 여아의 놀이성과 자기조절력 간의 상관관계

변인	여		
	인지적 자기조절	동기적 자기조절	행동적 자기조절
유머감각	.357***	.271***	-.026
정서적 놀이성	.551***	.561***	.285***
기발성	.568***	.489***	.172**
사회적 놀이성	.615***	.567***	.276***
독자적 놀이성	.401***	.314***	-.090
재미탐닉	.315***	.207***	-.023

** $P<.01$, *** $p<.001$.

사회적 놀이성($r=.276, p<.001$), 기발성($r=.172,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여아의 놀이성이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여아의 놀이성이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은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자기조절능력의 모든 하위변인에 대한 놀이성의 하위변인들($F=31.78, p<.001, F=21.50, p<.001, F=10.01, p<.001$)의 회귀방정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자기조절 하위변인에 대한 놀이성 각 하위변인들의 구체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먼저 인지적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미치는 놀이성 하위변인은 사회적 놀이성($\beta=.352, p<.001$)이 가장 높았고, 기발성($\beta=.265, p<.001$), 유머감각($\beta=-.251, p<.001$), 정서적 놀이성($\beta=.203, p<.01$) 독자적 놀이성($\beta=.170, p<.05$)순으로 나타났다. 동기적 자기조절력에 대한 놀이성 각

하위변인들의 영향력은 정서적 놀이성($\beta=.339, p<.001$)이 가장 높았고, 사회적 놀이성($\beta=.308, p<.001$), 유머감각($\beta=-.265, p<.001$)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미치는 놀이성 하위변인을 살펴보면 정서적 놀이성($\beta=.366, p<.001$)이 가장 높았고, 사회적 놀이성($\beta=.249, p<.01$), 유머감각($\beta=-.225, p<.01$), 그리고 독자적 놀이성($\beta=-.198, p<.01$)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여아의 인지적 자기조절력은 사회적, 정서적 놀이성과 기발성이 풍부하고 독자적으로 혼자 놀이할 수 있는 놀이 특성을 보일수록 높았다. 그러나 여아들은 유머감각이 높을수록 오히려 인지적 자기조절력이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와는 달리 정서적, 사회적 놀이성이 높을수록 동기적 자기조절력이 높은 반면 유머감각이 높은 여아는 동기적 자기조절력이 낮은 특성을 보였다. 그리고 정서적, 사회적 놀이성이 풍부할수록 행동적 자기조절력이 높은 반면 유머감각과 독자적 놀이성은 이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여아의 놀이성이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변인	여		
	인지적 자기조절	동기적 자기조절	행동적 자기조절
유머감각	-.251***	-.265***	-.225**
정서적 놀이성	.203**	.339***	.366***
기발성	.265***	.126	.034
사회적 놀이성	.352***	.308***	.249**
독자적 놀이성	.170*	.143	-.198**
재미탐닉	.056	.010	-.059
R^2	.466	.368	.203
F	31.779***	21.502***	10.011***

* $P<.05$, ** $P<.01$, ***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놀이성과 자기조절력간의 관계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밝혀보고 성별에 따른 양상의 차이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래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고 선행연구와 비교논의 하고자 하였다.

첫째, 성별에 따른 놀이성에 차이를 살펴보면 남아가 여아에 비해 유머감각이 높고 독자적 놀이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

지혜(2006)의 남아와 여아 간에 놀이성은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결과와 불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때는 놀이성이 성별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본 연구대상과 같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성별간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태산, 조미정(2008)의 연구에서 독자적 놀이성이 여아가 남아에 비해 높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다른 하위변인인 사회적 놀이성, 정서적 놀이성, 재미탐닉은 여아가 남아에 비해 높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불일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은 4, 5, 6학년이나 최태산, 조미정(2008)이 실시한 연구는 연령이 낮은 3학년도 포함하였다는 점이 다른 결과를 도출한 원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Barnett와 Kleiber(1982)의 연구에서는 남아가 모든 놀이성 차원에서 높게 평가된 반면 여아는 놀이성 전반에서 낮게 평가됨으로써 여아와 남아는 놀이성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Singer와 Rummo(1973)의 연구에서는 지능과 창의성에 상관없이 여아들이 표현력, 개방성, 놀이성이 낮으며 또래관계에서 덜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옥(2000), 김준희(2000), 송민영(1988)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놀이성 총 점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위요인인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 등에서는 남아가 여아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성에 따라 사회화 과정이 다르고 부모나 교사의 기대나

양육방법의 차이로 인한 아동의 놀이행동의 차이나 남아와 여아의 근본적인 놀이성향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둘째, 자기조절력에 관해서 성별에 따른 차이점은 여아가 남아에 비해 인지적 자기조절력과 행동적 자기조절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강기숙, 이경남, 2001; 양옥승, 2006; 이정란, 2003)의 내용인 인지적 조절력이 남아에 비해 여아가 높다고 한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현주(2009)는 인지적 자기조절력과 정서적 자기조절력이 여아가 남아에 비해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또 강기숙(2001)은 유아의 과제 인내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다고 보고하여 본연구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지루하거나 해야 할 과제에 참을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수행을 하는 인지적, 행동적 자기조절력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이경림(2001)과 Kendall과 willcox(1979)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여아가 남아에 비해 인지적, 행동적 자기조절력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여아들에게 여성적 특성을 더 강조한 결과로 유추된다. 또한 조절력의 문제와 연관되는 행동장애, ADHD, 인터넷 중독, 비행, 학습의 어려움 등이 남아가 여아에 비해 높다는 임상적 보고(신현균, 김진숙, 2006; 송종용, 1995)로도 그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셋째, 전체 아동의 놀이성 하위변인 중 재미탐닉을 제외한 모든 하위변인은 인지적 자기조절력과 동기적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유머감각은 부적인 영향을 그 외의 변인

들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행동적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미치는 놀이성 하위변인인 정서적 놀이성과 사회적 놀이성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머감과 독자적 놀이성은 부적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문인정(2008)이 보고한 행동적 자기조절력은 놀이성의 하위변인인 사회적 자발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 것과 유머감이 자기통제와 부적상관을 보인 것과 일치한다. 또한 사회적 놀이성에 해당하는 친구를 잘 사귀고 놀이감을 나누어 가지는 유아일수록 부정적인 감정을 잘 통제하고 과제를 지속한다는 선행연구(박윤자, 2005; 최경아, 2006; Singer & Sherrod, 1980)들과 유사한 맥락이다. 그리고 사회적 놀이성에 해당하는 친구를 잘 사귀고 놀이감을 나누어 가지는 유아일수록 정적인 감정을 잘 통제하고 과제를 지속한다는 선행연구들과(김지혜, 2006; 박윤자, 2005; 최경아, 2006; Singer & Sherrod, 1980)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특히 유머감이 행동적 자기조절력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영나(2005)가 보고한 ADHD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유머감이 높다는 것에서 그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 결과에서 유머감이 높은 아동이 행동적 자기조절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이 자기조절력이 낮은 ADHD 성향을 동반하였을 가능성도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특이한 결과로 독자적 놀이성이 인지적, 동기적 자기조절력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행동적 자기조절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는 아동이 혼자서 노래를 부르거나 유행하는 노래를 혼자서 빨리 익히며, 혼자 낙서하기를 좋아하는 등,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기회보다는 혼자서 자신의 욕구에 따라 시간을 보내며 인지나 동기적으로 자기를 조절하는 경험을 더 많이 한 결과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는 독자적으로 혼자놀이를 하는 경험이 지나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행동적 조절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아동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놀이성을 발휘하고 다양한 차원의 조절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동상담 현장이나 부모들은 아동이 혼자 노는 시간 보다는 또래와의 관계를 촉진하고, 기회를 확장하여 행동적 자기조절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두 변인간의 관계에서 남녀 양상의 두드러진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남녀 아동 모두 정서적 놀이성과 사회적 놀이성이 새 차원의 자기조절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는, 남아와 여아 모두 사회적 놀이성과 정서적 놀이성이 자기조절력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관계적 놀이상황에서 함께 놀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리드하고, 함께 놀이를 즐기며, 서로 놀이의 규칙을 의논하는 등 사회적, 정서적 놀이성이 풍부한 아동들은 놀이상황에서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자기조절력을 다양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항상 잘 웃고 표정이 밝고 명랑하며 친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등 정서적 안정과 활성화가 자기를 조절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두드러진 특성의 두 번째로 남녀 관계 양상

의 차이점은 남아의 경우는 정서적 놀이성이 인지적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여아는 중요한 설명변인으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그와는 반대로 기발성은 남아의 경우는 행동적 자기 조절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여아의 경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의 경우 사회적 자발성과 즐거움의 표현이 정서조절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여아의 경우 사회적 자발성만이 정서조절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아의 연구결과(김지혜, 2006)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 사회적 자발성과 즐거움의 표현이 정서조절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여아의 경우 사회적 자발성만이 정서조절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아의 연구(김지혜, 2006)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 여아가 남아에 비해 정서적으로 발달되고, 정서적 표현성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상통하는 결과이다(김지혜, 2006; 이지은, 1996).

그 이외에 기발성의 경우, 남아는 행동적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미치나 여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호기심과 기발성, 창의적 사고가 남아가 여아보다 높다는(최수경, 2005; Cramond, 1994; Goleman, 1995; Healey & Rucklidge, 2005)연구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나 독특한 행동에 대해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제한이 적은 것을 원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직접 비교 논의해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후행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 본 연구의 결과와 직접

비교 논의되고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를 바란다. 또한 광주 전남지역의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놀이성과 자기조절력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특정지역에 제한되어 연구대상이 표집 되었다는 점과 선행연구가 풍부하지 않아 비교논의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등이 본 연구의 중요한 제한점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보다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여 변인간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를 촉구한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최근에 소개된 놀이성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놀이성이 아동의 조절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온 아동의 놀이성 연구를 경험적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했다는 점과 아동의 성별에 따른 관계 양상을 밝혔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보인다.

참고문헌

- 강기숙, 이경님 (200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려성이 유아의 자기통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2(4), 155-132.
- 강복실 (2009). 놀이중심의 종이접기활동이 저소득가정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자기조절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웅, 방은령 (1996). *아동발달*. 서울; 형설출판사.
- 김경희 (1997). *한국 아동의 정서에 관한 심리*

- 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0(1), 43-56.
- 김경란 (1990). 유아의 놀이행동과 제 변인에 대한 연구. 성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문신, 김광웅 (2003).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정서표현 수용 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6(1), 3-13.
- 김미영 (2009). 경증 지적장애 시설아동의 자기주장기술 향상을 위한 치료놀이 사례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숙, 박분희 (2008).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아의 기질, 정서지능과 유아의 사회성간의 관계. 아동교육, 17(4), 143-154.
- 김양현 (1987). 자기통제법과 외적 통제법이 학업성적의 향상과 긍정적 자아 개념의 형성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희 (1996). 아동의 성·연령·기질과 놀이성 군(群)에 관한 연구. 아동연구, 11(1), 77-95.
- 김은숙 (2008).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과 자기조절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경 (2005). LT 협동학습이 유아의 자아개념과 자기조절력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혜, 김광웅 (2006). 유아의 놀이성과 정서능력과의 관계. 한국놀이치료학회지, 9(1), 91-105.
- 김준희, 박정옥 (2000). 유아의 놀이성과 창의성의 관계. 아동교육, 9(1), 11-15.
- 김지아 (2002). 자기조절 향상 프로그램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화자 (2008). 자기 주도적 산책과 길 찾기 활동이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지기개념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주 (2009).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병상 (2000). 자기조절학습전략 훈련이 아동의 학업 수행에 미치는 효과. 교육학논총, 20(2), 61-75.
- 문인정 (2008). 만 5세 유아의 놀이성 및 환상성과 행동적 자기조절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경 (2009). 초등학생의 분노표현능력과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분노조절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윤자 (2005). 어머니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력 및 놀이성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옥 (2000). 유아의 놀이성과 창의성의 관계. 아동교육, 9(1), 11-28.
- 박지연 (2009). 생활주제에 따른 만다라 활동이 유아의 주의집중 및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효과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화윤, 마지순, 천은영 (2004). 유아의 놀이성과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9(4), 285-298.
- 박호선 (2002).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유아의 자기조절 행동발달간의 관계.

-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백수정 (2002). 부모화합도와 아동의 정서지능 및 놀이성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경화 (2001).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자아 회복력 및 자기조절 능력과의 관계. 경희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손은혜 (2009). 감각적 기도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명자 (1995). 발달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송명자, 서봉연 (1988). 발달심리학의 최근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 1-19.
- 송민영 (1988). 유아의 창의성과 놀이성과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송종용 (1995). 빛나간 아이들의 세계. 청소년 상담문제 연구보고서, 1-49.
- 신현균, 김진숙 (2006).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대한의사협회지, 38, 1000-1007.
- 양유진 (2010).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 나누기가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미경 (1997).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관계. 서울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애열 (1994). 유아의 상상놀이와 교사개입에 관한 관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실 (2004). 유아의 놀이성 관련 연구 분석. 논문집, 24, 13-20.
- 이경림 (2001).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간관계: 아동의 사려성, 자기개념 및 어머니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 회지, 29(12), 91-110.
- 이미화 (2009). 인터넷 중독 예방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인터넷 게임중독 완화와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영 (2007).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따른 놀이 계획, 수행, 평가의 일치정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숙 (2007). 집단치료놀이를 통한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증진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나 (2005). ADHD 성향 아동의 창의성과 자기 유능감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란, 양옥승 (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요인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3(2), 69-90.
- 이정훈 (2002). 중학생의 특기적성교육 참가유형과 자기조절능력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은 (1996). 아동의 정서표출 규칙 사용 능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혜원, 황윤세 (2006). 도시와 농어촌 유아의 놀이성 및 사회·정서 관련 변인간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47, 313-315.
- 양명희 (2002). 자기조절학습 구성변인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3(2), 47-70.
- 양옥승 (2006). 3-6세 유아의 자기조절력 측정척도 개발. 미래유아교육학회 13(2), 161-187.

- 윤영신 (2007).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 관련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경임 (1996). 인지적-행동적 자기통제 훈련이 아동의 자기통제능력, 과제 수행능력 및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의 개선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영숙 (1996).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아동의 과제수행 열심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0(1), 159-170.
- 정미경 (2000).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의 분석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4(1), 85-108.
- 정정옥, 강문희 (1996). 자기조절학습이 정상아와 학습장애아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유아학회지, 17(2), 141-161.
- 최경아 (2006). 영재유아의 기질과 사회적 능력, 자기조절 능력간의 관계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경 (2005).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아동의 창의적 인지능력과 성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심영 (2009).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청소년의 자기조절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희 (2004).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아동의 자기-유능감 차이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5(4), 17-32.
- 최정원 (1999). 주제환상극놀이 활동이 유아의 자기조절력 및 대처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8(2), 143-158.
- 최태산, 최명선, 조미정 (2008). 초등학교생의 놀이성 척도 개발. 놀이치료연구, 11(4), 35-52.
- 홍기철 (1994). 자기조절 기능의 발달수준에 따른 컴퓨터 본위 수업의 통제방략이 학습과동기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윤세 (2007). 유아의 기질, 자기조절력과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와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2(1), 145-166.
- 황윤세 (2008).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력과 정서지능이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3(6), 195-213.
- 황의명 (1997). 유아를 위한 감성교육 프로그램. 서울: 양서원.
- 허정경 (2003). 학령기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척도 개발과 관련 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Barnett, L. A. & Klieber, D. A. (1982). Concomitants of playfulness in early childhood: Cognitive abilities and gender.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1, 115-127.
- Bronson, M. B. (2000). *Self-regulation in early children: Nature and Nurtur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aplan, R. J. (2000). Assessment nonsocial play in childhood In. Kagitlin-Weiner, A. Stalker & C. Schaefer (Eds), *Play diagnosis and assessment* (pp.563-598).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Cramond (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nd creativity.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research Association, New Orleans, LA. *The Journal of Creativity Behavior*, 25(3), 193-210.

- Cumming, Davics (1996). Emotional security as a regulatory process in normal development and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Developmental and Psychopathology*, 8, 123-139.
- Dipietro (1981). Rough and tumble play: A function of gender. *Developmental Psychology*, 17(1), 50-58.
- Derryberry, D. & Rothbart, M. K. (1988). Arousal, affect and attention as components of tempera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58-966.
- Erikson, E. H. (1972). Play and civilization. In J. S. Bruner, A. Jolly, & K. Sylva (Eds), *Play: Its role in development and evolution*. New York: Basic Books.
- Eisenberg, Fabes (1992). Contemporaneous and longitudinal prediction of social functioning from regulation and emotionality. *Child Development*, 68 (4), 642-664.
- Eisenberg, N., Fabes, R. A., Karbon, M., Murphy, B. C., Wosinski, M., Polazzi, L., Carlo, G., Gollmar (2000). An Investigation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Creativity, Cognitive Style: Interaction and Impact on School Succ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Georgia. Athens.
- Freud, S. (1925). Three contribution to the sexual theory. *nervous and mental Disease monograph Series*, No.7. NEW York: Nervous and mental Disease Publishing Co.
- Garcia. T. & Pintich, P. R. (1994). "Regulating motivation and cognition on the classroom; the role of self-schemas and self-regulatory strategies." In D. H. Schunk & B. J. Zimmerman (Eds) *self-regulation of learning and performance issues and educational application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reenberg, M. T., Lengua, L., J., Coie, J. D., & Pinderhughes, E. E. (1999). Predicting developmental outcomes at school entry using a multiple-risk model: Four american communities. *Developmental Psychology*, 35(2), 403-417.
- Gole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5). Meta emotion; how families communicate emotionally. Mawha: Erlbaum.
- Healey & Rucklidge (2005). An exploration into the creative abilities of children with ADHD. *Journal of Attention Disorders*. 8(3), 88-95.
- Singer & Rummo (1973). Ideational creativity and behavioral style in kindergarten aged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8, 154-161
- Juhnke, C. (1996). The relation of children's dispositional prosocial behavior to emotionality, regulation and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7, 974-92.
- Kendall & Wilcox, 1979; Dintrich & De groo t (1990). Self-control in children: Developmental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Psychology*, 47(6), 1020-1029.
- Kopp, C. B. (1982).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s; A developmental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43-54.
- Marsh, H. W. (1989). 1990 The structure of academic self concept: The Marsh Shavelson mode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 623-636.
- Mayer, Salovey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Mcombs, B. & Marzano, R. (1990). Putting the self-regulated learning: The self as agent intergranting will and skill. *Educational Psychologist*, 25(1), 51-69.
- Mischel, W., & Mischel, H. N. (1983). The development of child's knowledge of self-control strategies. *Child development*, 54, 603-619.
- Pulaski (1973). Toys and imaginative play. In J. Singer (Ed). *The child's world of make-believe: Experimental studies of imaginative paly* (pp.74-103). New York: Academic Press.
- Singer & Sherrod (1980). A factor analytic study of preschooler's play behavior. *American Psychology Bulletin*, 2, 143-156.
- Smith & Daglish (1977). An empirical study factor analytic study of preschooler's play criteria. *Child Development*, 56, 1042-1050.
- Tauber (1979). Parental socialization techniques and sex differences in children's play. *Child Development*, 50, 225-234.
- Udwin (1983). Play in lower primary school in Norway.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Children's Play*. Lisbon, Portugal.
- Zimmeman, B. J. (1990). A social-cognitive view of silf-regulated academic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 329-339.
- Zimmerman & MartinezPons. (1990). Student diferances Self-regulated Learning; Relating grade, sex and giftness to self efficacy and strategy u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1), 51-59.
- Zenman J., & Shipmen, K (1996). Children's expression of negative affect: reason and methods. *Developmental Psychology*, 32(5), 842-849.

1차 원고접수 : 2010. 10. 08.

수정원고접수 : 2010. 11. 18.

최종게재결정 : 2010. 12. 03.

The Effects of Playfulness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upon Self - Regulation

Tae San Choi

Mee Jung Cho

Dongshin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also aimed at uncovering any out sex differences between playfulness and self-regulation. The subjects were 562 elementary school boys and girls from the fourth to sixth grades in Gwangju Province. Data were analyzed by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statistical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boys' and girls' playfulness influenced their cognitive and motivational self-regulation with the exception of pursuing interests. secondly the boys' sense of humor was higher than that of the girls' and the boys' independent playfulness was lower than that of the girls. Thirdly there were sex differences in self-regulation. The girls' cognitive and behavioral self-regulation was higher than that of boys'. Fourthly in terms of emotional and social playfulness, self-regulation positively and also influenced self-regulation positively in both boys' and girls. In contrast, in the case of boy emotional playfulness didn't influence cognitive self-regulation. Hoever in the case of girls' emotional playfulness was an important factor.

Key words : elementary school, playfulness, self-regulation, sex differene, relations